

## 활기있는 구멍탄용온수보일러 시장

최근 가정용 보일러 업계의 뜨거운 열풍이 일고 있는데 유독 그 열기속에서 제외되고 있는 보일러가 있다. 서민들의 겨울철 한때를 데워주는 연탄 보일러는 보일러의

택보급율을 증가시켜, 지속적인 주택건설 경기 부양에 노력할 것을 밝혔다.

주택신축경기는 사실상 보일러의 생산고를 증가시키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국 9백83만 4천가 구중 7백53만5천가구가 난방을 연탄에 의존하고 있는 점

특집 / 진단 1989, 가정용보일러시장을 가다

구멍탄용온수보일러

# 침체에 접어든 구멍탄용온수보일러

2십년이상 서민연료로 헌신, 봉사해온 연탄이 타에너지의 경제성 제고로 가정 난방 연료로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수입탄의 수입계획은 없는 가운데 국내 부실탄광 정비의 소리는 높아져 가고만 있는 가운데 연탄보일러의 시장성은 한해가 다르게 퇴색되 가고 있다. 연탄보일러가 사양의 길로 접목되는 배경이 무엇인지 본지는 철저 분석 파악해 보고 올해의 연탄, 석탄보일러의 시장전망을 살펴본다(편집자주)

가격이나, 연료비가 싼 난방설비이지만, 다소 수명이나 편리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난방설비의 패턴이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에너지 소비추이가 고급화되고 있다는 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87년도 주택보급율이 69.27%정도 였는데 '92년까지 72.8%까지 우리나라 주

을 감안하면 구멍탄용(연탄)보일러 시장은 과연 급속도로 침체 될것인지?

한편 연탄 보일러 생산업체들은 4백여 군데 이며 유류용 온수 보일러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잠시 밀려났을뿐 실제 생산량의 감소는 없었다고 한다. 현행 유류용 온수 보일러 32개 제조업체중 90% 넘는 제조업체가 연탄 보일러

생산부터 시작을 했다.

로켓트보일러, 경동보일러, 대원보일러, 신진 기계를 비롯해 삼원, 새생활, 성호, 진카트도 연탄보일러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으면서 유류용온수보일러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 시장의 규모는 3백억 정도로 B/S 제조업체들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일러 제조업체들은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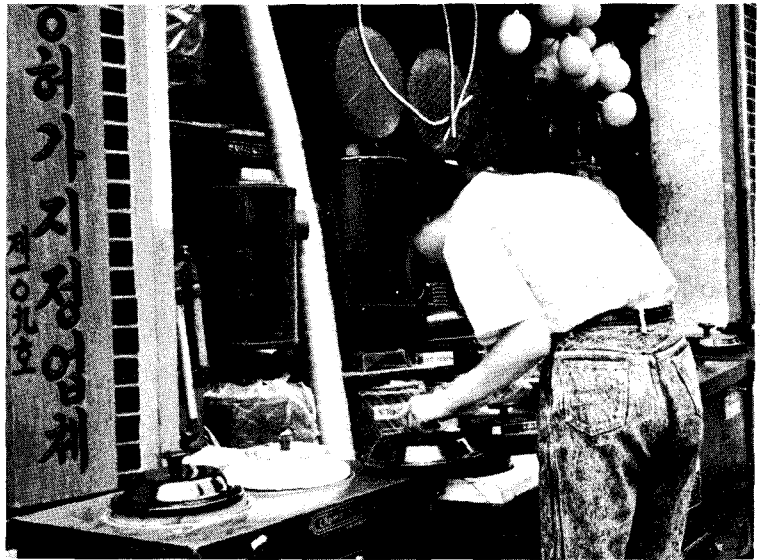
「'75년 부터 연탄, 기름보일러를 동시에 생산을 했습니다. '86년을 고비로 계속 유가가 하락하자 '87년에는 유류용 온수보일러가 대호황을 누렸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연탄보일러 생산보다 유류용 온수보일러 생산에 더많은 시간과 투자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주) 삼원기계는 생산원가 및 공정에 많은 인력이 요구되고 채산성이 맞지 않는 연탄보일러를 생산할 이 유가 없다고 말한다.

### 채산성이 낮고 공정과정이 많아 업체들 기피현상 늘어

기업경영의 주된 목적은 이윤이다. 이윤이 없는 품목은 생산할 이유가 없는게 제조업체들이다. 또한 연탄 보일러는 뚜렷한 기술개발을 요하지도 않으며 개발할 소지가 분명치 않다.

십년전 연탄 보일러 가격에서 모든 물가가 상승한 현재 까지도 그 가격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순한 공정이



아닌 여러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잔손이 많이 가는 품목이라 더욱더 제조업체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소비자들도 떨감으로 방을 덥히는 난방 방법이 자취를 감춘지 오래이고 그뒤 나타난 게 연탄 보일러 였다.

연탄보일러를 처음사용 할 때는 온종일 난방이 싼 연료값으로 가능한 장점만 보여졌으나 경제성장은 국민의식구조에도 많은 변혁을 가져와 수명이 짧고 온도 조절이 어려우며 열 손실도 많고 연탄가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하면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연탄을 갈아야 하는 단점이 더 크게 보였다. 이에 유가하락이 촉진제 역할로 가세하자 상대적으로 연탄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꼴로 나타났다.

「'72년도 부터 연탄 보일러를 생산 판매를 하다 '87년도 하반기 부터 유류용 온수 보일러의 호황이 되자 새생활에서도 9월부터 시제품을 시판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연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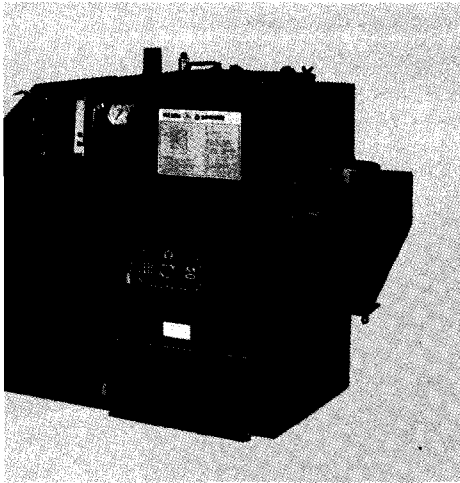
보일러의 생산을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 수요때문에 생산량에 차질을 가져오면서도 라인을 그냥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의 에너지 동향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라며 (주)새생활에서는 또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 연탄의 가격경쟁력 당분간 더욱 약화

정부의 연탄에 대한 정책방향은 올해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알아보면, 국내 무연탄의 부존은 가채매장량이 약 6억 톤으로 현행 생산규모로 30년 정도 생산이 가능하며, 4천칼로리미만의 저열량탄이 가채매장탄이 가채매장량의 24% 및 생산량의 28%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무연탄은 국내 유일부존의 에너지로서 총에너지 소비중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연탄소비의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연탄은 가정연료의



주종을 계속 전지하고 있다.

'87년 연탄사용가구의 비중 75% 정도였다.

연탄의 경쟁에너지인 석유(경유)의 국내판매가격이 '81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 '86년을 고비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 비해 국내탄의 생산원가는 채굴의 심부화, 임금인상등 구조적인 상승요인을 지니고 있어 연탄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연간 5.5%씩 증가해 오던 무연탄의 소비가 '87년도 전년 2.2%의 감소 '88년에는 3.7%감소를 보았으며, 앞으로도 국내탄의 생산비는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유가는 향후 최소한 2~3년간 안정될 전망이다므로, 연탄의 가격경쟁력은 당분간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탄보다 고가였던 수입무연탄의 가격이 '87년말 현재 국내탄 가격의 91% 수준에 해당하고 있으며 향후 수입무연탄의 가격은 원화절상 임금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수입물량 증대등으로 국내탄 가격이 저렴해질 전망이

다. 정부는 지금까지 증산을 도모하기 위해 채탄여건이 불리한 국내 탄광에 대한 생산비지원, 후생복지, 광산안전시설, 광해방지시설비등에 대한 지원으로 연간 7백억이상의 석탄산업조정사업을 위한 지원을 해왔다.

대한석탄협회에서도 향후 5년후에는 석탄 생산량의 전체 물량중 7백6십만이 감소될 것이며 이는 전체비중의 1/3정도라고 한다.

'88년에 수입탄은 1천9백만t을 수입하기로 하고 1천7백만은 유연탄으로 산업용, 발전용, 제철용으로 2백만은 연탄으로 소비할 목적이었다.

올해에는 수입탄에 대한 수입 계약은 없다.

전년도 수입량중 8십5만톤 정도가 남은 물량인데 올해는 8십 5만톤만 들여 올 계획이며 국내 생산량 만으로 소비는 충분하다고 하며 연탄소비자가 계속 하락하니 경제성 없는 탄광은 정비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대한석탄협회에서는 2천년이면 연탄(난방)소비는 현재의 절반수준 정도 일 것이며 세계적인 추세가 국민소득이 향상되면 clean energy로 가며 GNP의 성장은 편리함을 추구 번거로움을 피한다.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는 급격히 연탄소비가 감소하며 공해문제도 도시가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한다.

## 금년 석탄보일러 시장은 불투명

이에 수입하는 양질의 석탄

을 연료로 하는 석탄보일러는 어떤 추세인지 살펴보면 연탄을 갈아넣는 불편함이 없는 석탄 보일러는 입자탄을 2~3일에 갈아준다. 가격은 연탄보일러의 세배가 훨씬 상회하면서 기능은 기름보일러와 같은 기능을 지녔다.

입자탄을 조여주는 스크류식, 오르락하는 엘리베이트식, 위에서 밀어주는 팽방식등 연료공급에 자사의 독특한 특수방식등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석탄보일러 업체현황은 대성광업개발, 봉명산업, 한양에너지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연탄보일러와 기름보일러에 비해 연료의 이송방식, 연소방식이 다르며 입자탄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82년부터 석탄보일러를 판매하기 시작한 봉명산업은 선발업체로 유가파동이 심화될때 석탄보일러에 재미를 보다가 '86년 이후 지속적인 유가하락에 올해 석탄보일러 시장은 불투명할것이라 지적한다.

'86년 9월부터 석탄보일러 시장에 시제품을 선보인 대성광업개발(주)는 지속적인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였다며 올 판매량도 전년에 비해 2백% 신장세로 보고 있다며 다른 견해를 표명했다.

연료의 고급화 추세로 연탄보일러의 침체됨은 확실하지만 유가상승의 변동에 따라 시장판도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석탄보일러의 시장성 또한 유가상승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것 같다.

(최미련 기자)